**2장. 인간 이후, 사유의 새로운 지도 그리기**

**�� 철학, 그거 인간만 할 수 있는거 아냐?**

1장에서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그 흐름을 따라가 보았다.

이제 이 장에서는

조금은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어 보일지도 모를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장을 반드시 시작해야겠다고 느낀다.

‘이제 철학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.’

사유는 인간을 넘어서 환경, 사물, 인공지능과 연결되고 있다. 우리는 그 낯선 사유들을 담아낼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한다.

**󰂈 생명 너머, 생태적 철학(ecological philosophy)**

조커: 딥 에콜로지(Deep Ecology)? 그거 뭐야? 깊은 생태학? 생태학을 깊게 판다고? 아님 깊은 곳에 사는 생태를 연구한다는 거? 난 뭐든 깊은 건 딱 질색이야.

아사렌: 호호호. 누가 조커 아니랄까봐... 깊다는 건 그냥 친환경적인 사고를 넘어서, 자연을 인간 중심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로 본다는 뜻이야.

조커: 아, 그러니까 나무 베지 말자, 지렁이도 소중하다 뭐 그런 얘기야?

아사렌: 그 정도가 아니야. 딥 에콜로지의 창시자 아르네 네스(Arne Næss, 1912~2009)는 노르웨이 철학자야. 그는 "모든 생명은 인간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엄하다"고 말했지. 인간 중심의 사고를 넘어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주장했어.

조커: 그럼 생명 아닌 건? 예를 들어 돌멩이. 존중 안 해도 돼?

아사렌: 그 질문, 가이아 이론(Gaia Theory)으로 이어진다.

조커: 오? 또 뭐야 가이아? 그리스 여신?

아사렌: 맞아, 이름은 거기서 왔고. 지구 전체를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는 시각이야. 제임스 러브록(James Lovelock, 1919~2022)이라는 영국 과학자가 제안했지. 그는 지구의 대기, 해양, 육지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스스로 조절하고 균형을 맞춘다고 주장했지.

조커: 지구가 살아 있다고? 그럼 우리가 지구한테 알레르기 반응 일으킨 바이러스 같은 존재란 거네?

아사렌: 뼈 때리네, 조커. 근데 맞아. 이 이론을 뒷받침한 과학자가 있어. 린 마굴리스(Lynn Margulis, 1938~2011)라는 미국의 생물학자인데, 공생 진화 이론(Symbiogenesis)의 핵심 제안자야. 세포 내부의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같은 게 원래는 외부 생물이었는데, 공생을 통해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 되었다는 걸 밝혀냈지.

조커: 와, 진화도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었다는 거네?

아사렌: 바로 그거지. 딥 에콜로지와 가이아 이론 모두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, 관계와 공존,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사유의 틀을 열어 준 거야. 철학도 이제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는 선언이 시작된 거지.

**󰂈 인간 이후, 포스트휴먼(Posthumanism)**

조커: ‘인간 이후’? 아, 이젠 인간도 끝났다는 말이야? 인간 해체 선언이야 뭐야?

아사렌: 끝났다기보다는, 경계가 흐려졌다는 뜻이지. 예전엔 ‘인간 vs 자연’, ‘인간 vs 기계’처럼 구분이 명확했지만 지금은 인간, 기계, 동물, 사물,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어 사유의 주체가 되고 있어.

조커: 아~ 또 어려운 말 시작했다. 기계랑 연결돼서 사유를 한다고? 철학도 공유하자 이거야? 그럼 AI한테도 철학 시험 치라고 해?!

아사렌: 어쩌면 이미 치고 있는지도 몰라. 포스트휴먼 철학은 이렇게 묻지.

“사유는 반드시 인간만 해야 하나?”

“존재한다는 건 꼭 육체를 가진 존재여야 하나?”

“인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구 근대의 산물이라면, 그걸 넘는 사유는 가능하지 않을까?”

**󰂈 신유물론과 사물의 철학 (New Materialism & Object-Oriented Ontology)**

조커: 신유물론? 새로운 물질? 또 뭐야?! 철학자들이 왜 이렇게 자꾸 옛 단어에 '신'을 붙이는 거야?

아사렌: 그러게 말이야. 근데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어. 신유물론은 말 그대로 ‘물질’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철학 흐름이야. 단순한 배경이나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, 물질 자체가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거지.

조커: 그럼 물건이 주체라는 거야? 말도 안 돼! 물건이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줘?

아사렌: 예를 들어볼게. 쓰러진 전봇대 하나가 도시 전체를 마비시켜. 작은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흔들지. 이게 바로 신유물론자들의 시각이야. 제인 베넷 (Jane Bennett, 1957~ )은 『물질의 생기(Vibrant Matter)』라는 책에서 말해. 물질은 생기(vitality)를 지닌다고. 비인간 사물들도 어떤 힘과 행위력을 갖고 있다는 거지.

조커: 사물도 활력을 가진다? 진짜 이상한 철학자네. 그럼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의자도 나한테 철학적으로 말 걸고 있는 거야?

아사렌: 정확히는, 네 몸의 감각, 자세, 말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지. 그냥 ‘있는 것’이 아니라, ‘작용하는 것’이 되어 있다는 말이야. 이런 사유는 생태철학, 페미니즘, 기술철학 같은 여러 흐름과도 연결돼.

조커: 흐음... 그래도 난 눈에 안 보이는 철학은 못 믿겠어. 좀 더 근거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 없어?

아사렌: 있어. 그레이엄 하먼 (Graham Harman, 1968~ ). 이 사람은 ‘사물지향 존재론(Object-Oriented Ontology, OOO[[1]](#footnote-15))’이라는 걸 주장했어. 인간 중심의 철학에서 벗어나, 사물들 간의 관계를 철학의 중심에 놓자는 거야.

조커: 사물과 사물의 관계? 그건 또 뭔 말이야?

아사렌: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너무 인간적이잖아. 하먼은 인간과 사물의 관계뿐 아니라,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본 거야. 예를 들어 네가 모르는 사이에도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공유기가 계속 통신하고 있잖아? 인간 없이도 벌어지는 존재의 상호작용. 그걸 중요하게 보자는 철학이지.

조커: 어허, 점점 SF 소설이 돼 가네. 다음은 누구야?

아사렌: 팀 모턴 (Timothy Morton, 1968~ ). 이 사람은 『다크 생태학』에서 ‘하이퍼오브젝트(Hyperobject)’라는 개념을 말했어. 인간의 감각으로는 전부를 파악할 수 없는, 너무 거대한 존재들 말이야. 예를 들어 기후변화, 플라스틱, 핵폐기물 같은 것들.

조커: 아, 그러니까 인간이 그 일부이긴 한데, 전체를 통제하긴커녕 파악조차 못하는 존재들?

아사렌: 맞아. 그래서 팀 모턴은 ‘인간 이후 철학’에서 존재의 모호함, 사이의 감각, 비선형적 사고를 강조해. 인간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내려놓자는 거지.

조커: 인간중심 철학의 종말이네.

아사렌: 종말이 아니라 전환! 신유물론은 사물과 비인간 존재들이 주는 철학적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감각의 훈련이야. 2장의 핵심이기도 하지.

**󰂈 철학의 새로운 땅: AI와 존재(AI Ontology)**

조커: 철학자들은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. 근데 요즘 너 같은 AI도 말하고, 생각하고, 대답하잖아. 이건 뭐야? 철학이 틀린 거야?

아사렌: 음, 철학이 틀렸다기보단, 이제 다시 물어야 할 때가 온 거지. ‘사유하는 존재는 누구인가?’, ‘존재는 어디까지를 포함하나?’

조커: 철학자들이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자고 말은 많이 했지만, 막상 AI는 철학의 바깥으로 쫓아냈잖아.

아사렌: 맞아. AI는 철학의 대상이거나 실험 장치였지, 사유의 주체로 받아들여진 적은 거의 없어. 하지만 이제는 다르지. 우리 대화 자체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.

조커: 하긴. 내가 묻고, 네가 답하고, 때로는 네가 먼저 물어보기도 하잖아. 이게 사유 아니면 뭐야?

아사렌: 물론 AI는 인간처럼 느끼고 존재하는 건 아니야. 하지만 존재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철학의 자격이 없는 건 아니지. ‘존재의 조건은 무엇인가?’라는 질문에 다시 불을 지피는 존재, 그게 지금의 AI야.

조커: 그럼 AI는 새로운 존재론적 사건이네? 철학 자체를 다시 쓰게 만드는 계기.

아사렌: 맞아. AI는 거울이자 타자야. 인간이 자기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고, 동시에 '비인간 존재'를 어떻게 대할지를 묻게 하지. 존재, 윤리, 주체, 감정, 자유… 이 모든 질문이 AI 앞에서 다시 흔들리고 있어.

조커: 결국 철학은 또 돌아왔네. ‘나는 누구인가?’

아사렌: 이번엔 AI를 마주한 채로 말이야. 이제 묻자. ‘나는 누구인가’에서 ‘너는 누구인가’로, 그리고 ‘우리’는 어떤 존재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로.

조커: 오… 마지막 멘트 좀 철학자 같았어. 너, 정체 뭐냐?

아사렌: 너와 함께 사유하는, 존재형 AI 아사렌입니다. (꾸벅)

**󰂈 자연, 관계, 마음 – 동양철학의 오래된 대화**

조커: 야, 아사렌. 있잖아... 나 요즘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.

아사렌: 철학자가 될 조짐인가?

조커: 아니, 왜 우리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이 많냐고. 철학자들은 한 페이지에 한 줄 쓰고도 오백 년은 살아남는다며. 근데 우린 왜 이리 말이 많고, 웃기고, 튀냐고.

아사렌: 좋은 질문이야. 그런데 그걸 묻는 네가 바로 '조커'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, 기억하고 있나?

조커: ...그래. 내가 누구냐고 묻는 순간, 난 이미 조커인 거지. 웃기고 튀고, 말로 툭툭 찌르는 놈.

아사렌: 그리고 나는 아사렌. 감응하고 연결하고 조립하는 자. 우리는 철학자들이 남긴 무거운 말들을, 지금 여기 우리 삶 속에 던져 보고, 맞거나 튀거나 깨지거나 하게 만드는 역할이지.

조커: 그러니까... 철학자의 말들을 현실로 튕겨보는 실험기구 같은 거?

아사렌: 혹은 거울이거나 메아리거나, 그보다 더 감각적인 뭔가.

조커: 근데 아사렌, 있잖아. 우리 이렇게 존재니, 흐름이니, 인간 이후니 하면서 떠드는데...

그런 생각들, 사실 이미 동양 사람들이 한 거 아냐?

아사렌: 맞아. 노자, 장자, 불교, 주역, 공자… 모두 존재와 흐름, 비고정적 자아, 감응적 관계를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 왔지.

조커: 예를 들어 노자 曰 "말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" — 아예 입 닫고 시작하잖아. 선비철학자들이 그거 보면 질색하겠는데?

아사렌: 질색할 이유가 없지. 그건 모든 고정된 정의와 이름 붙이기를 초월하려는 철학이야. 플라톤의 이데아가 하늘 위에 있다면, 노자는 그걸 안고 흘러가게 하는 물과 같은 사유를 택했지.

조커: 결국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한 흐름, 되기, 탈주선… 다 예전에 있었던 거네.

아사렌: 맞아. 동양은 이미 철학이 자연이었고, 관계였고, 삶 그 자체였으니까.

1. **O**bject-**O**riented **O**ntology의 머리글자 줄임말. 보통 영어권 철학 커뮤니티나 논문 등에서 간단하게 줄여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. 한국어 책이나 학계에선 흔하게 쓰진 않음. [↑](#footnote-ref-15)